



부처님 향한 간절함, 이웃 위한 따뜻함, 모든 번뇌 소멸위한 '한마음'

지난 19일, 가을이 한창인 산사에 오색단풍을 무색할 정도로 기온이 푹 떨어졌다. 비까지 내린 사자산의 체감온도는 마치 겨울의 한 북판에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이러한 추위 속에서도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의 수행 열기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후끈 달아올랐다.

"기도하는 사람이 육체적 힘들 정도는 감수해야죠." "이 모든 것이 수행이죠." "중생이라면 당연히 힘들고 불편하죠.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에서 도착한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의 부처님을 향한 구도의 열정은 한결같아 보였다. 사자산이 한눈에 바로보이는 흥녕선원지 근처에 임시로 마련된 주차장에서 출발한 회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기도 장소인 적멸보궁을 향했다. 열네번째로 진행된 이번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순례길을 날치 못지않게 제법 긴거리

를 걸어야 했다. 게다가 경내에서 적멸보궁까지는 언덕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제2보궁(약사전)에 도착했을 때, 한 보살이 발길을 멈춰 섰다. 턱까지 차오른 숨을 고르기 위해서다. 그는 "108산사 회원들은 편함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걷는 것도 수행이다."며 이마에 흐른 땀을 닦은 후 곧바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큰 자비심을 으뜸으로 하여 지혜를 증장시켜 범부의 틀에서 벗어나 여래의 품안으로 든다"고 말씀하셨다.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품안에 들기 위해 지혜광명의 성지 법흥사 적멸보궁을 향해 열심히 걸고 또 걷는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말 그대로 고행길이지만 그 열정은 젊은 사람 못지않다.

마침내 적멸보궁에 도착한 회원들

은 모두들 익숙하게 각자 준비한 듯 자리를 깔고 기도에 들어간다. 『전수경』, 『독송』, 『108참회』, 『발원문 낭독』 등 순례법회는 기존 사찰에서처럼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법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답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바른신행실천 운동'이다.

이 자리에서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 해사스님은 지침 중 특히 "이웃과 남을 비방하는 말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복 짓기 위해서 기도를 다하는 것인데, 남을 탓하고 비방한다면 아무런 공덕이 없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자비스럽고 부드러운 말만 해 만 가지 덕과 복을 짓자"며 실천지침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해사 스님이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열정적으로 이끄는 것을 보고 신심이 나고 존경심이 생겼다"며 "새로운 포교의 장과 수행을 가꾸어

가고 있는 회원들에게 신장님이 지켜 주고 온 국민이 박수치며 바라보고 있다"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어 "화두 중에 '판치생모'가 있는데, 이 뜻은 '이에서 털이 나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108산사순례기도회가 '판치생모' 정신으로 수행해서 깨달기를 바란다"며 화두를 깨치듯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례기도가 끝난 뒤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은 다시 제2보궁(약사전)으로 내려와 108산사 책에 낙관을, 그리고 적멸보궁에서 '법흥사'가 새겨진 열주알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사자산 연화봉에서 부처님이 방광하는 의미가 담긴 문장이 새겨진 핸드폰 고리를 모든 회원들에게 일일이 나눠줬다. 한편 극락전 앞에는 영월지역 농특산물이 선보였다. 적멸보궁에서 기도를 마친 회원들은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찾아 농촌사

랑에도 동참했다. 감자떡과 더덕 등 을 한보따리 구입한 한 회원은 "올 때는 군장병들을 위해 초코파이를, 돌아갈 때는 농촌사랑을 위해 농특산물을 한아름 안고 간다"며 즐거워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이 사자산 적멸보궁 순례법회를 마치고 버스에 오를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산사에는 어둠과 함께 추위도 찾아왔다. 하지만 돌아가는 회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다.

하루종일 일심으로 기도하고, 장병사랑, 환경사랑, 농촌사랑을 펼쳤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 이번 법흥사 순례법회에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이웃을 위한 따뜻함 그리고 모든 번뇌를 소멸코자 하는 일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문경1글·사진=고영배 기자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1 적멸보궁에서 기도하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
2 군장병을 위한 초코파이 탐이 만들어졌다.
3 영월지역의 특산물을 사는 회원들.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저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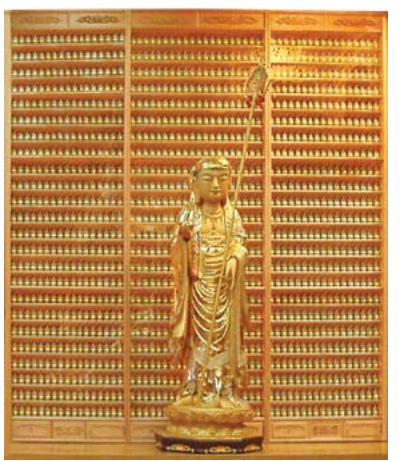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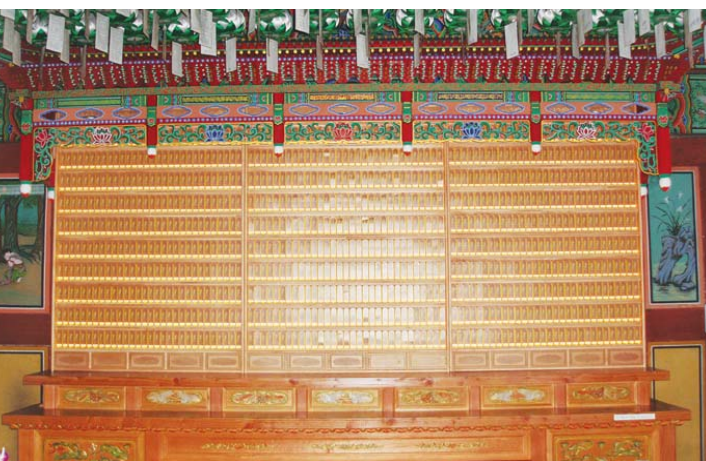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잡등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